

# 예수님의 비유(210922)

## ■ 제 11 강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(마 13:24-30)

### 1. 전후 문맥: 마 13 장은 성경의 ( )장

- 1.1.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(마 13:1-23)
  - 1.1.1.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
  - 1.1.2. 길가, 돌밭, 가시떨기, 좋은 땅
  - 1.1.3.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결실(13:23)
- 1.2.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(13:24-30; 34-43)
- 1.3.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(13:31-33)
- 1.4.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장사의 비유(13:44-46)
- 1.5. 그물과 물고기 비유(13:47-50)

### 2. 비유의 내용

- 2.1. ( )의 때(13:24-25)
  - 2.1.1. 주인이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림
  - 2.1.2.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덧뿌림
- 2.2. ( )의 때(13:26-29)
  - 2.2.1.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람(시 73:16-17)
  - 2.2.2. 종들이 가라지를 제거하려 함
  - 2.2.3. 주인의 만류: 곡식까지 상하게 됨
- 2.3. ( )의 때(13:30)
  - 2.3.1. 추수꾼이 가라지와 곡식을 따로 모음
  - 2.3.2. 가라지는 불에 사르고
  - 2.3.3. 곡식단은 곳간에 넣음

### 3. 비유의 해설

- 3.1. 좋은 씨를 뿌리는 이 = ( ) (13:36)
- 3.2. 밭 = ( ); 좋은 씨 = 천국의 아들들; 가라지 = 악한 자의 아들들(13:37)
- 3.3. 가라지를 뿌린 원수 = ( ); 추수 때 = 세상 끝; 추수꾼 = 천사들(13:38)
- 3.4. 가라지의 운명: 풀무 불에 던져져 이를 갈게 됨(13:42)
- 3.5. 알곡의 운명: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됨(13:43; 단 12:3)

#### 4. 비유의 요점

- 4.1. 가라지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님
- 4.2. 알곡과 가라지의 정해진 ( )에 대한 진술
  - 4.2.1.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 없이 존재
  - 4.2.2. 그러나 구별할 때가 있음
- 4.3. 알곡은 더욱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됨
  - 4.3.1. 선한 목자의 ( )을 듣고 따름(요 10:27)
  - 4.3.2. 알곡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새롭게 함

#### 5. 결론: 결실하는 삶

- 5.1. 알곡의 삶 = 열매 맺는 삶 → 네 가지 땅의 비유
  - 5.1.1. 알곡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, 마음에 새김(길가; 13:19)
  - 5.1.2. 알곡은 ( )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지 않음(돌밭; 13:21)
  - 5.1.3. 알곡은 세상의 ( )와 재물의 ( )에 흔들리지 않음(가시떨기; 13:22)
  - 5.1.4. 알곡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함
- 5.2. 결실하는 삶
  - 5.2.1. 소극적: 말씀을 견고히 붙들 → 세상의 끝과 하나님의 구원(사 40:8)
  - 5.2.2. 적극적: 진리의 ( ) →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함(단 11:33; 12:3)